

디지털성범죄 10명중 3명 '10대'...신상공개 못한다

221명 검거 32명 구속...자경단도 본격 수사대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9일까지 10대 65명 등을 포함해 총 221명을 검거했고, 이중 박사 조주빈(25)을 비롯한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1주일 새 피의자 숫자와 구속인원이 각각 81명, 9명이 늘어난 성과다. 경찰은 지난 2일 간담회 당시 140명 검거, 23명 구속을 밝힌 바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65명, 30대 43명이 뒤를 이었다. 40대도 4명에 50대 이상도 6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중 10대 피의자는 부모 등 신뢰관계인을 입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 중·고등학교 등에 통보여부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221명 중 조씨처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을 공갈·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제작·유포한 인원은 모두 117명으

로 운영자 9명, 유포자 14명, 소지자 94명으로 파악됐다.

또 제작영상을 확보해 또다른 방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재유포한 경우는 모두 15명으로 채팅방 등 운영자가 10명, 유포자가 1명, 소지자가 4명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몰카) 영상이나 합의를 하지 않은 성관계 영상을 1대1 채팅을 통해 유통한 49명도 탈미가 잡혔다. 운영자 24명, 유포자 24명, 소지자 1명이다. 다만 이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과는 다른 경우로 분류됐다.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자수자는 1주일 새 겨우 1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에서 1명이 추가로 자수했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선 자수자는 서울에서 3명, 전남에서 1명이었다.

경찰은 또 자경단을 자처하면서 성착취물 이용 의심자 신상을 폭로하는 채팅방을 운영하던 '주홍글씨', '중앙정보부' 등 채팅방 운영자와, 지인사진을 성인배우와의 합성을 요청한 이들의 탈미를 잡고 '남성 청소년 노예'를 부리던 처벌방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 본사와 접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서버업체와 수사공조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가 앞서 언급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관련 수사도 "서울경찰청에서 (여전히) 조사 중인 상태"라고 짧게 답했다.

조씨 외 추가적인 신상공개는 아직 검토되는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행에 가담했더라도) 미성년자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으며, 각 지방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건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착취물 피의자 중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전체 검거인원 중 29.4% 해당하는 10대 피의자 대다수는 n번방, 박사방 가담 여부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이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유통수사로 검거한 10명 대다수는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고, 가담자 중에는 범행당시 초등학교생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검찰 '성착취 영상물 사범' 전원구속...관전자도 엄벌

검찰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보다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이들을 전원 구속할 뿐만 아니라, 공유방에 유료회원으로 참여만 하는 '관전자'도 역시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처리기준은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도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유포, 소지한 행위를 모두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먼저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한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구형하되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계획이다. 또 개별적으로 제작했다더라도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고 죄질이 무겁다면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

또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일반 규모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의 형을 요청한다.

불법 영상물 소지자에 대한 처리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영업 목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영상물을 대량 소지할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다.

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강화된 처리 기준을 적용하면 단순히 영상물을 갖고만 있어도 초범은 벌금 500만원을 매기고,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 6월 이상을 구형한다.

신봉우 기자

●단신● "마스크 팔아요" 글 올리고 돈만 가로챈 20대

전남 곡성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후 입금받은 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A씨(26)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인터넷포털 중고거래 카페에 코로나19로 인해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 18명에게 270만원을 입금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콘서트 티켓과 컴퓨터 모니터도 판매한다고 속여 56명에게 257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아 돈을 입금한 피해자가 모두 74명, 금액은 총 2840만원으로 파악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는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불안한 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잇따르는 물품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수사요원 4명을 모두 투입, A씨의 범행을 밝혀내고 검거해 구속했다.

광주서 음주운전 경찰관 12일만에 또 적발

광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건이 또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경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경장은 전남 오후 11시17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의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오전 4시2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A경감(46)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입건됐다.

70대 아버지 살해 40대 조현병 아들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A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오후 1시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79)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정신병원 입원과 금전 문제 등으로 아버지와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6일 오후 10시50분쯤 A씨 거주지 인근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자가격리 오스트리아 교환학생 극단적 선택

'자가격리'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자가격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남인 8일 오전 10시29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A씨(22·여)가 자택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신고는 A씨의 어머니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어머니는 7일 오후 10시 이후부터 이튿날인 8일 오전까지 딸이 방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소방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스트리아 교환학생 생활을 하다가 이달 4일 귀국했다. A씨는 귀국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자택에 자가격리 됐다. A씨는 7일 어머니에게 자가격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알렸다.



"우리 아이들 돌려주세요" 신천지 가출자녀 피해 부모들로 이뤄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9일 경기도 가평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별장 앞에서 면담요청서 전달식 및 피해사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